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5. 24. (금)

이주대책은 지역의 주택수급과 입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하반기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일보, 5.24) >

◈ 年 2만~3만 가구 이주, 일정 빡빡...신도시 재건축 괜찮나

ㅇ 10년 동안 해마다 2~3만 가구씩 이주수요, 전월세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에 대책이 부실

ㅇ 10년이 걸리는 재건축을 2~3년만에 마무리하여 27년 착공 가능할지 의문

□ 이주대책은 **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**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**지역주민 수요조사** 등을 토대로 **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**하여 하반기 중 신도시별 **기본계획에 포함**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.

ㅇ 이주대책은 우선 **지역에 충분한 주택공급**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인 **개발사업을 관리하여 신규공급을 확대**하고,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**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포함**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입니다.

□ 정부는 **안전진단 면제를 통한 사전 준비기간 단축**과 함께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**협력형 정비모델**을 통한 **인·허가 기간 단축** 등의 방안을 통해 **선도지구가 '27년에 착공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담당부서	도시정비기획준비단	책임자	단 장	최병길 (044-201-4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현 (044-201-49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